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재희 인문학 공부마을 석천학당 원장

요즘 석천학당 학생들과 주역 공부에 푹 빠져 시간이 는 줄 모르고 지낸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주역 철학은 상처 나지 않고 온전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된다. 인생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가오는 상황을 정확히 인정하고(時·시), 바라보고(觀·관), 결정(象·단)해야 한다. 그 모든 과정에서 질문과 대답은 모두 나의 몫이다. 주역은 나에게 묻고 내가 답하는 학문이다. 세상에 나만큼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없기에 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엄중하고 현명한 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주역의 11번째 괘, '지천태(地天泰)' 괘를 봤었다. 태(泰)는 평안하고 태평하다는 뜻으로 사람 이름이나 지명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한자어이기도 하다.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편안하다는(國泰民安·국태민안), 태안(泰安)은 인류 역사의 꿈이었다. 경복궁 교태전(交泰殿)은 주역의 태괘(泰卦)에서 유래한다. 하늘(天)과 땅(地)이 서로 자리를 바꿔 교차(交·교)하여

태평성대를 위한 교태(交泰) 혁명

태평한 세상을 만든다는 뜻으로, 최초 만들어졌던 세종 때에는 왕과 신하들이 정사를 의논하고 연회를 베풀던 장소였다. 하늘은 자신을 낮추고 내려가고(來·래), 땅은 하늘 위에 올라가(往·왕) 존중받는 지천(地天)의 세상이 태평성대다.

강자가 약자를 섬기고, 권력이 개인을 보호하고, 갑이 을에게 양보하는 세상이 교태(交泰)의 세상이다. 강자와 약자가 대립하지 않고 소통하니 같은 꿈을 꿀 수 있다. 기업이 교태하면 경쟁력이 강화되고, 가정이 교태하면 만사가 형통하다. 교태는 역할을 바꾸는(交) 혁명이다. 대한민국의 다음 혁명은 교태혁명이다. 정치인은 나라에 헌신하고, 의사는 환자를 섬기고, 경영자는 노동자를 존중하고, 강자는 약자를 보호하고, 국가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실질적 혁명이 교태혁명이다.

교태혁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공약이 필요하다. 첫째, 다음을 인정해야 한다. 다른 주장을 하는 거친(荒蕪) 집단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고 과감하게 포용(包·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모두가 '맞다'라고 해도, 과감하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집단이 있어야 그 사회는 건강하다. 비록 맑은 거칠고, 표현은 서투르지만 사회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하게 하는 교태백신이다. 둘째, 과감한 개혁이다. 강물(河·하)을 댐으로(馮·빙) 건널 수 있는 용기로 혁신과 개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태평성대에는 개혁

의 주장이 힘을 잃는다. 평화와 안정이 영원할 것이라 잘못된 믿을 때문이다. 태평의 시대는 언제든 불통의 시대로 바뀐다. 다만 시간이 문제다. 익숙하고 편한 것과 결별하는 용기가 있어야 그 시간을 늦출 수 있다.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셋째 소외계층의 보호이다. 세상은 강자들만의 세상이다. 약자들도 보호받고 인정받아야 한다. 소외된(遺·하) 사람들을 버리지(遺·유) 않고 챙겨주는 대동(大同)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흠아비, 과부, 고아, 노총각 노처녀(鰥寡孤獨·환고독)는 맹자가 강조하는 사회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다. 요양병원에서, 고독한 병실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좁은 방에서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을 사회가 잊지 않고 배려해주는 세상이 교태의 세상이다. 넷째 사적 이익집단의 해체(亡·망)다. 집단 이익을 위해 패거리(朋·봉)를 조장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다. 학연과 지연, 업연(業緣)으로 얽힌 사적 이익 집단은 세상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과감한 이익집단의 해체, 교태혁명을 완수하는 방점이다.

땅은 계속해서 평평하게 이어지지 않고(無平不陂·무평불피),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無往不復·무왕불복). 태평성대도 때가 되면 불통의 시대를 만나고, 화려한 궁궐도 결국 폐허의 성(陞城·황성)이 된다. 황성옛터에서 지나간 영광을 추억하며 뉘두리하기 전에 교태혁명을 과감하게 수행해야 할 이유다.

社說

문화유산 출토 광주 구도심 체계적 발굴 시급

광주가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15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고대(古代) 도시였다는 증거가 잇따른 유적 발굴로 확인되고 있다. 광주시 동구는 최근 '매장문화유산 공고'를 통해 지난 4-5월 시행한 정밀 발굴조사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고려청자 조각 등 유물 30여점이 출토됐다고 게시했다.

유물 중에는 광주읍성 인근에 실존했지만 정확한 위치나 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았던 고려 사찰 대향사의 실체를 암시하는 기와편이 발견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구도심 일대에선 지난 30여년간 도로 확장 등 공공개발 과정에서만 4차레나 고대 유적이 발견됐다. 1994년 북구 누문동 광주제일고 신축공사 과정에서 통일신라 전기에 해당하는 8-9세기 유물과 건물지가 발견됐고 1998-1999년 동구 금남로 지하철 1호선 공사 구간에선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기와, 토기, 청자 등이 출토됐다.

이는 광주 구도심이 삼국시대부터 조선

에 이르기까지 150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한 유서깊은 고대 도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주는 통일신라 '9주5소경' 중 무진주로, 조선시대 들어 중심도시가 된 서울·대구, 개항과 일제강점기 이후 대도시로 성장한 인천·부산·대전 등 타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역사문화도시라는 것이 잇따른 유적 발굴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통일신라의 무진도독성은 광주읍성과 중북대 구도심에 자리했음 것으로 추정돼 이참에 고대 도시 광주의 역사 복원을 위해서라도 체계적인 조사와 발굴이 뒤따라야 한다.

다른 대도시가 갖지 못한 광주 구도심이 가진 정체성을 확립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구도심은 쇠락과 인구유출로 곳곳에서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자칫 소중한 유적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민간 사업의 대다수가 매장 유산을 사전에 조사해야 하는 의무 면적(3만㎡)에 미치지 못한 만큼 유적 보호 차원에서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도 시급하다.

공공기관 양육정책 지원 조건 현실화해야

인구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양육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책 각 가정에서 활용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이를 낳지만 하면 마치 지자체가 나서 키워줄 것처럼 정책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는 불만이다.

광주시가 지난 2011년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20-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이 사업의 경우 지난 4월까지 606명의 조부모가 지원을 받고 있다. 문제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가 쌍둥이·세자녀 이상인 세대,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여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등 지원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점이다. 특히 같은 세대가 중복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 돌봄 공백이 발생한 대다수의 가정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부모가 야간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 아이돌봄' 역시 정책 긴급한 상황에서는 활용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아이 등록 과정을 거친 후 예약을 신청하도록 돼 있어 실제 긴급한 상황에서 바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아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예약이 힘든 상황이다.

그밖에 광주시교육청이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학교·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경비를 지원하는 '꿈드림비 바우처'의 경우도 사용처가 한정적인데다 이체와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자체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복 지원을 없애고 돌봄 교사를 확충하는 등 체계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각 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지-나-가 버린- 어-린 시절엔~,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밴드 '다섯손가락'의 노래 '풍선'의 도입부다. 풍선은 노래처럼 어른들에게는 어린 날의 추억이나 꿈을 소환하는 매개체이다.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하늘을 나는 상상의 나라를 띄게 해주기도 한다. 수많은 만화 영화에 풍선을 타고 여행하거나 하늘을 나는 장면이 나오는 이유일 것이다. 비슷한 이유일지 모르지만 해외 여행을 떠나는 한국인들은 튀르키예의 카파도키아, 호주 시드니 등지에서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나는 체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

난해 중국이 떠온 비행 풍선이 미국을 횡단해 대서양에 이를 때 미국이 이를 격추시키면서 양국 갈등이 증폭됐다. 중국은 대기총중용이라 주장했지만 미국은 국방·정보수집용으로 의심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도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선전전에 배라를 담은 풍선을 이용했다. 최근 수년 동안은 남한의 대북 관련 활동가들이 북한 실상을 담은 배라 등을 넣은 풍선을 북으로 날려 보냈다. 급기야 얼마전 북한이 대북 전단을 빌미로 각종

풍선 전쟁

바람을 넣으면 동그스름하게 부풀어 오르며 커지는 풍선은 보는 이들에게 행복감과 만족감을 준다. 이때문에 개업이나 돌잔치 등 각종 행사에 빠지지 않고 활용되는 소재이다. 풍선은 시각적으로는 기분을 좋게하는 기능을 가졌지만 비행이 가능한 특성 탓에 오래 전부터 전쟁의 도구로 활용됐다. 독일 분단기인 1960-1970년대 서독과 동독은 배라가 담긴 풍선을 상대 진영에 날려 보내며 체제 혼란을 부추겼다. 중국과 미국도 풍선으로 격돌한 적이 있다. 지

스레기를 매단 오물 풍선 1000여 개를 남한에 날려보내자 참다 못한 정부가 북한이 가장 꺼리는 대북 확성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북 확성기 등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하겠다는 우리측 경고에 북한이 오물 풍선 실패 잡중 단을 선언하면서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6일 탈북민단체가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대북전단 20만장을 실패포했다고 밝히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풍선 싸움의 전쟁으로 치달을 기세다. 남과 북은 항상 그렇지만 대화가 우선이다. /채희중 정치·사회담당 편집국장chae@

종교칼럼

감수불보(甘受不報)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살아가다 보면 전생에 지은 업이 찾아들 때가 있는데 그 업장(業障)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한번 지은 업(業)은 진리가 또는 법신불이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그 방벽이 너무도 높아서 때로는 내 앞길을 막기도 하고 또 높이 되기도 한다. 업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습기로 짓는 업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짓는 정업(定業)이다.

살면서 스스로 습관을 들여서 만든 습기는 잠으로 무서운 것이다. 내가 우울한 생각을 하고 남을 늘 원망하면 그 복잡한 우울한 습관이 쌓여서 기분 나쁜 습이 올 수 있고 또 성질을 급하게 사용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습이 쌓여 급한 성질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자기의 습기를 잘 길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습기도 두 가지가 있다. 좋은 습관으로 진급(進級)하는 습기와 나쁜 습관으로 감급(降級)하는 습기이다. 나 혼자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먹은 것이라도 모두 업 주머니에 저장되었다가 다시 내게 와서 나의 인격이 된다. 사람들을 보면 각자 개성이 다르고 품격이 다르다. 그것은 그 사

람이 속세에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 나타난 결과이다. 오랜 세월 습기가 쌓이고 살았느냐에 따라 나타난 결과이다. 오랜 세월 습기가 쌓이고 모여 그 사람의 얼굴이 되고 몸이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이다 지금 내가 가진 자기의 습기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다른 하나는 내가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육근(六根)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했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정업이다. 정업은 크게 선업과 악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복을 짓도록 해주면 좋은 정업이 쌓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죄를 짓도록 하면 나쁜 정업이 쌓이게 된다. 그런데 그 나쁜 정업은 나의 업 주머니가 아니라 상대한 사람의 업 주머니에 저장되기 때문에 죄 주고 복 주는 권한이 상대에게 있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연이 맺어지면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금생을 살면서 보시를 많이 하고 선업을 많이 짓고 부처님 법문을 많이 전해 주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종교인들은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고 또 누군가를 위해 걱정해 주고 기도를 올려주고 도와주려는 보시 공덕을 많이 쌓는 것이 바로 좋은 정업을 쌓는 빠른 길이다. 하지만 반대로 갑자기 병이 찾아온다든지 일을 할 때 인연을 잘못 만나서 그 일이 그르치게 되는 것은 전부 악한 정업이 나에게 오기 때문이다. 나에게 악한 습기가 있을 때 전생에 지은 악한 업보와 마주치면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럴 때 공부심을 쟁겨 기도를 올리면

악습의 구름이 지나가고 악업이 오퍼라도 그것을 잘 취사선택해서 줄여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얻기도 한다.

사람이 살면서 공사를 잘하기 위해 일하다가 부득이 업을 짓기도 하고 또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업을 짓기도 한다.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받으시다가 그만 배탈이 나서 열받았다. 부처님 같은 분도 공사를 하다 보면 사기 약기를 늘려서 이처럼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번 지은 업은 부처님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인과보응의 이치이니 우리가 이 없을 깊이 공부해서 스스로 이참(理懺) 사참(事懺)을 잘해야 한다. 지금 내가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아무 예단 없이 동작해서 감급하는 습관을 들이느라 잘 생각해 보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선한 습기를 얼마나 들였는지 유념하다 보면 전생에 지었던 나의 습기를 발견할 수 있다.

악한 업이 돌아올 때는 몸으로도 오고 인연으로도 오고 환경으로도 밀려오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 혹 지금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악업을 받고 있다면 그 업이 몸 때문이든 인연 때문이든 환경 때문이든 순전히 전생에 지어서 받는 것이다.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사람도 원망하고 하늘도 원망하지만 우리들은 금생이나 전생에 지어서 받는 것임을 알아서 달게 받음과 동시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지 연구해서 원망하기 보다는 풀어나가는 데 힘써서 '달게 받고 값지 말고 보은하라'는 원불교 대산종사(金大壽, 1914-1998, 3대 중법사)의 말씀에 새기면서 일상생활을 행복하게 했으면 한다.

기고

청년활동가를 응원합니다



전명원 시민플랫폼 나들 공동대표

"올해 1분기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지역에서 8000명의 인구가 빠져나갔는데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집계된 인구 순유출 1만 5000여 명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고 연령별로는 청년층의 인구 유출이 두드러진다. 39세 이하 기준 광주는 2100여 명, 전남은 3300여 명이 지역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28일자 뉴스를 접하고 필자의 청년 시절이 떠올랐다. 1980-90년대 광주는 청년 활동가가 광장히 많았다. 유동에 있는 YWCA 건물 맨 위층 공간에 입주해 있던 사회·문화 단체들은 순전히 청년들 천국이었다. 전공 성적으로 보자면 쉽게 취업할 수 있는데도 자발적으로 나선 무보수 활동가부터 고작 월 5-10만 원 정도의 활동비로 버티는데도 그 일을 하는 친구가 부러울 정도로 사회적 일이 고된, 맑은 눈빛의 청년들이 굽주린 하이어나처럼 몰려다니던 시절이 있었다. 광주였기에, 5-18을 경험한 특별한 도시이기에, 가능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취업을 포기하고 지역활동가로 나선 청년들이 전국적으로도 참 많았던 대전환 시대였다.

그런데 IMF를 겪고, 신자유주의 경제 시대를 거치면서 능력 중심 경쟁사회가 가속되어 취업 전선에도 비상벨이 켜져서 지방대 졸업자는 취업이 점점 힘들어졌고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커지다 보니 지역의 청년들은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게 되었다.

유년기 환경이 거의 다 낙후되지 않았던 전후 베이비붐 세대도 대졸자의 취업만큼은 쉽지 않았지만 지금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당시 청년활동가 친구들은 심시일 반하여 쥐꼬리 월급에서 일직 액수를 떼어 친구의 통장에 넣어주면서 함께 활동하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던 사회 환경이었다. 그러니 1980년대 광주의 청년활동가였던 부모로서는 취업도, 결혼도, 지역 활동도 마땅찮은 자녀를 볼 때에 참 안쓰러운 마음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시민플랫폼 나들'이라는 새로운 시민단체가 만들어졌다. '나들'의 연간 활동 중에 '지역 청년활동가 지원' 사업이 있다. 이는 창립 이듬 해인 2015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 당시에도 쉬지 않고 이어온 활동이다. 지방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버리는 현실 속에 그래도 뭔가 광주지역에서 공익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응원을 해보자는 뜻에서 시작한 활동이었다.

첫 해는 청년 캠퍼서 여행 프로젝트를 시도해봤다고 해부터는 마을활동가, 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자원봉사자, 문화기획자 등 5-8명을 발굴하여 월 10만원 정도의 소액을 지원했다. 교통비나 점심값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적지만 '나들'로서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올해 나들은 청년지원 사업으로 인해 정체성에 혼란이 왔다. 솔직히 코로나19 동안 단체의 활동이 멈추다시피 한 동안 회원이 줄어들어서 논의 끝에 지원 액을 절반 정도로 줄여서 6명의 청년활동가 지원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35명이나 몰린 것이다. 예년에는 많아 봐야 1.5배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몇 십만원 지원에 거의 6배 정도나 되었으니 나들 이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학동 참가, 이태원 참가 등을 내용으로 한 1인극을 준비하는 청년을 외면할 수도, 지구환경 문제를 고민하는 청년을 탈락시킬 수도 없었다. 여러 단계의 내부 심사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아예 새로운 결론을 내렸다. 다른 사업을 줄이고 전용해서라도 청년 지원액과 지원 수를 배 이상 확대하고 청년들이 하는 일과 관련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회원을 영여워서 일 차원에서도 도움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 것이다.

2024년 올해는 시민플랫폼 나들이 창립된 지 10년 된 해이다. 2014년 창립 당시 주로 50대였던 회원들이 이제는 60대가 되었고 코로나19까지 겹치다 보니 단체 활동이 무기력해 있던 차에 청년들이 우루루 몰려왔다. 그들은 나들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어 주었고 발상의 전환을 갖게 해주었다.

청년 활동가들이 광주를 지키는 한 '시민플랫폼 나들' 역시 청년 곁에 있겠다. 1980년대, 급어에서 오천원씩 떼고 심시일만 모아, 지금은 나들 회원이 된 당시의 활동가 청년을 응원하던 그 친구들처럼 지역의 청년 활동가들을 응원하겠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1952년 4월 20일 創社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편집국내선: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기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64
전남본부: 220-0680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광고문의 062-227-9600
경영지원국 220-0515
기획관리국 227-9600
기자인사 220-0536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